

탑의 진화

⑬ 중국의 불탑(3)-전탑

지난 호에는 나무를 주요 재료로 조성한 누각식 형태의 목조탑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는 벽돌을 주요 재료로 하는 전탑(磚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벽돌은 인류가 발명한 최초의 인공건축 자재로 약 8,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신석기 시대인 기원전 6,000년 전부터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이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집을 짓기 시작하여, 바빌론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부터 고대의 벽돌제조기술이 서쪽으로 이집트·지중해, 동쪽으로는 인도와 중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500년경부터 생산되어 묘를 만들거나 성을 축조할 때 사용되었으나, 불교가 전래되면서 탑을 조성하는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불탑 중 현재까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양식은 전탑 양식이다. 그 이유는 벽돌 자체의 특성 때문이다. 벽돌은 내구성과 안정성이 석재와 비슷하고 무게가 돌보다 가벼우면서도 다양한 양식을 표현할 수 있고, 조각도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명나라 이후에는 벽돌 제작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여 전탑이 크게 유행하여, 목탑과 석탑을 거의 조성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전탑의 특징은 구조적으로 외형상 목조건물을 모방하여 두공, 대들보, 기둥, 서까래 등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벽돌 구조 건축의 예술적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초기 목탑의 외형적 모방에 그치는 한계를 담고 있다. 더구나 전탑의 취약점은 벽돌 사이에 접착을 비롯하여 수목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식물이 자랄 수 있어 뿌리나 줄기로 인해 탑이 쉽게 붕괴되기도 한다. 또 인위적으로 쉽게 벽돌을 빼내갈 수 있어 폐쇄의 시대에는 전탑이 붕괴의 수난을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탑 조성에 사용 된 벽돌의 제작 방법은 보다 나은 내구성을 위하여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되어 왔다. 당대(唐代)에는 황토 진흙을 사용했고, 송대(宋代)에는 황토진흙에 벼의 왕겨를 섞어서 내구성을 강화 시켰으며, 명대(明代) 이후에는 석회를 사용하여 안정성이 크게 발전하여 고층으로 불탑을 조성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누각식 전탑으로 유명한 것은 서안의 자은사 대안탑(사진 1)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대흥사에 있던 무루사(無漏寺)의 옛 땅에 648년(정관 22년) 황태자 이지가 돌아가신 어머니 문덕황후를 위해 건립한 것이 대자은사이다. 대자은사의 규모는 대단하여 전각이 모두 1,897칸이었으며, 상주하여 수행하는 스님만 300명이 넘게 살았던 큰 절이었다. 소설 서양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삼장법사 현장스님이 인도에서 불경을 가져와 자은사의 상좌로 있으면서, 변경원에서 불전의 한



전탑은 벽돌을 주재료로 한 탑이다. 벽돌은 내구성과 안정성이 석재와 비슷하면서 무게가 돌보다 가벼워 다양한 양식을 표현하고 조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이 남아있다. 누각식 전탑 양식으로 유명한 서안의 자은사 대안탑.

역 사업에 종사했다. 자은사에서 현장스님의 불경 번역은 658년(현경 3년)까지 11년에 걸쳐 40 여부의 경전이 한역되었으며, 652년 대안탑이 조성되었다. 대안탑은 현장스님이 인도·서역으로부터 지참한 불상이나 경전을 봉안하기 위한 탑이었다. 당(唐)나라 때 혜립(慧立)과 인종(彦宗)이 688년 4월에 저술한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에 대안탑 조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다.

영휘 3년(652) 3월에 삼장법사 현장스님은 대자은사 정문 남쪽에 돌로 만든 석탑을 조성하여 인도에서 가지고 온 경전과 불상을 봉안할 계획을 세웠다. 현장스님은 세상이 워낙 무쌍한 것이므로 경전이 산실(散失)될까 봐 걱정도 되고, 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석탑을 선택하였다. 석탑의 폭과 높이는 30장(丈)으로 하여 대국(大國)의 숭엄한 기를 나타내고 불심을 고취시키고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적을 모방하여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런 석탑 조성의 계획을 세웠지만, 황실에서는 칙사 이의부(李義府)를 시켜 석탑은 공력(功力)이 크게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벽돌로 짓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내어 스님도 이에 동의하여 전탑으로 조성 되었다. 탑의 기단은 4면으로 각각 140척인데, 인도의 양식을 모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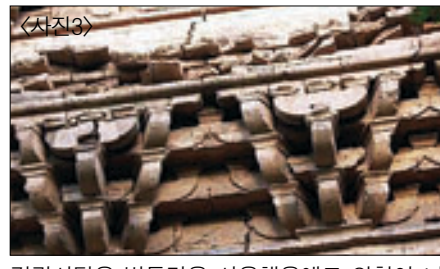
여 중국의 옛날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탑은 5층으로 되었고, 상륜(相輪)과 노반(露盤)이 있으며 총 높이는 180척이나 되었다. 층마다 그 속에 사리를 안치했는데, 어떤 것은 1천, 2천 개씩이나 들어가 무려 1만여 량(粒)이나 되었다. 상층에는 돌로 감실(籠室)을 만들었다. 탑의 남면에 두 개의 비석이 있는데, 각각 태종(太宗)과 고종(高宗)의 '삼장성교서기(三藏聖教序記)'가 새겨져 있다. 이 글은 저수량(遵良)이 쓴 것이다. 처음 탑을 완성하던 날에 삼장법사 현장스님은 스스로 다음과 같이 서원을 기술하였다. 간략하게 기록한다면 다음과 같다.

“현장은 스스로 생각하건대, 복이 박하게 태어나서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을 뻔했는데, 그나마 작은 선업(微善)에 올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말법(末法)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귀의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경사스럽게도 어려서 출가하여 직접 신령한 부처님의 모습(靈相)을 보았고, 어려서부터 법을 사모하여 남긴 가르침(遺教)을 들었습니다. <중략> 그러나 생령(生靈)이 박운(薄運)하면 함께 의지할 하늘을 잃을 것이기에 오직 삼장(三藏)의 법본(梵本)이 갑자기 모두 사라져 버릴까 걱정이입니다. 그렇게 되어 이성(聖聖)의 천문(天文)이 텅 비어 버리고 기록했던 것들이 다 없

# 전탑, 석재보다 가볍고 다양한 조각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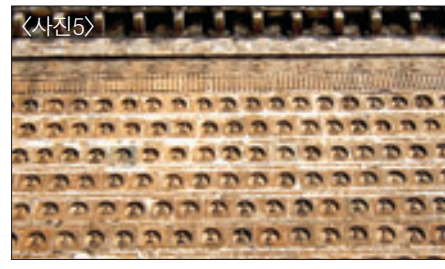
예술성이 돋보이는 경림사탑



경림사탑은 벽돌만을 사용했음에도 외형이 나무를 조각한 것 이상으로 화려하고 정교하다.



천청사탑은 개봉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천청사탑 외벽에는 벽돌마다 불상을 조각했다.

현존 중국불탑 중 전탑 가장 많아 명나라 이후 목·석탑 거의 없어 벽돌 사이 식물 서식 단점 황토진흙→황토왕겨→석회 진화 자은사 대안탑 대표 누각식 전탑 경림사탑 목탑 이상 화려 정교해 천청사탑, 개봉지역 현존 最古 1천여개 벽돌 일일이 불상 조각

어절개 두렵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이 탑을 정중하게 높이 세워서 법문을 안치하기로 하고 또 풍비(豊碑)를 세워서 이 서기(序記)를 새깁니다. 바라옵건대 영경동안 우복 솟아 천분 부처님(千佛)께서 함께 보셔서 이 성스러운 발자취(聖跡)를 빛나게 하시어, 해와 달과 더불어 영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삼장법사는 직접 삼태기를 지고 벽돌을 운반하였다. 이렇게 2년이 걸려 완성되었다.

<대전정수대장경 50권 260쪽 후반> 이처럼 현장스님의 발원에 의해 조성된 당시의 명칭은 경탑(經塔)이었다. 그러나 '대안탑'이라는 명칭의 유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에는 이와 관련된 설화가 소개되어 있다. 육

식을 허용하였던 인도의 한 가난한 절에서 밥을 짓는 한 스님이 주지스님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어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만 짓고 있는데, 때마침 한 무리의 기러기 떼가 날아가는데 신기하게도 기러기 한 마리가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져 내렸다. 이에 놀란 스님이 주지 스님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주지 스님은 “이것은 기러기가 아니라 보살이 희생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보시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일로 절의 모든 스님들이 감동을 받아 다시는 육식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희생한 기러기를 위하여 5층탑을 조성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이야기가 중국에 전해져 '큰기러기탑' 즉 대안탑(大雁塔)이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대안탑은 현장스님의 원력과 당 고종의 보시로 경전을 봉안하기 위하여 인도의 불탑형식을 모방하여 벽돌로 조성되었으나, 외벽에 잡초가 자라서 얼마 가지 못하고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축전후후는 장안(長安 701~704) 연간에 같은 자리에 4각7층의 누각식 전탑을 조성하였다. 이후 766년에 다시 10층으로 중수하였는데 전란으로 상층부분이 무너져 7층만 남았는데 명대(明代)에 탑신의 외벽에 벽돌을 다시 덧대어 오늘의 모습을 하고 있다. 현재 높이는 64.1m 이고 기단부 한 변의 길이는 25m에 달한다. 각 층마다 4개의 아치형 출입문이 있고, 내부에는 원형으로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다. 이 대안탑은 1719년에 처음으로 매년 1mm 이상 서북방향

으로 기울고 있음이 발견되어 현재는 약 105cm 기울어져 원인과 대책이 모색 중에 있다.

또 다른 누각식 전탑으로 예술성이 뛰어난 것은 중국 8대 고찰 중 하나였던 경림사(慶林寺)터에 있는 경림사탑(사진2)을 들 수 있다. 하북성 형수시 고성현에 있는 8각 7층탑으로 높이가 35m에 달한다. 이 탑은 약 800년 전인 북송(北宋) 초기에 조성된 전탑으로 순수 벽돌만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의 구조가 마치 나무를 조각한 것 이상으로 화려하고 정교하다. <사진 3> 이 불탑은 저지대에 위치하여 초층 탑신 일부가 흩어 파묻혀 있었으나 2011년 대대적인 보수를 하여 입구를 봉쇄하게 되었다. 그러나 2층 이상의 탑신은 온전하여 2중 구조의 처마와 두공 및 각 층의 탑신, 사방 벽면에는 아치형 불감, 다른 사면에는 벽돌로 창문과 다양한 문양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탑상부에는 동으로 제작된 보병(寶瓶)식 탑찰이 있으며, 내부는 계단이 있어서 탑의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구조이다.

하남성 개봉시 천청사(天淸寺) 경내에 있는 천청사탑(사진4)은 6각형 누각식 전탑으로 인근 거주민들의 생씨가 대부분 번씨(繁氏)이며, 번대(繁臺)라고 부르는 높은 언덕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번탑(繁塔)이라고도 부른다. 이 천청사탑은 북송(北宋) 974년에 세워졌으며 개봉에 현존하는 건축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원래는 6각9층탑으로 높이가 80m에 달하였다. 그러나 명(明)나라 태조 주원장의 아들이며, 뒤에 영락황제가 된 주체(朱 棣)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는 이 탑을 보고 탑의 기운을 누르고자 3층 이상을 파괴하는 폐탑의 과오를 저질렀다. 현재는 높이 약 32m로 3층의 모습만 남아 있으며, 1층은 남쪽에 한 개의 출입문이 있지만 2층은 6면에 각 하나씩 모두 6개의 출입문이 있고 또 다시 3층에는 하나의 출입문이 있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불탑의 가장 큰 특징은 각 벽돌에 새겨진 불상 조각이다. 탑신 외벽과 내부에 약 1,000여개의 벽돌을 이용하여 각 벽돌마다 불상이 새겨진 것이다. <사진5> 그렇기 때문에 이 불탑을 천불지탑(千佛之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불상들은 모두 108 종류의 다양한 도상으로 아름답고 정교하게 조각되어 송대의 뛰어난 예술성과 신앙심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 외에도 서안의 황고사탑, 항주의 육화탑, 천태산의 국경사 수탑, 안경의 진풍탑, 상현의 흥성교사탑, 등천의 승천사탑 등등이 누각식 전탑으로 유명하다.



글·우인보 <동국대부속역교 교학실장>

## 지장보살님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 현신하신다!!

‘영산불교 현지사 대구분원’은 지장보살님의 주처(住處)로서 영험한 지장기도 도량입니다



**지장보살님 가피로 딸아이가 취직을 하다**  
2012년 음력 12월 1일 지장보살님 100일 기도에 입재한 후 지금까지 계속 지장보살님 10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지장보살님 가피를 제일 크게 받은 사람은 제 딸입니다. 제 딸은 2013년 5월에 국민보험공단 입사할려고 시험을 보았지만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두 번이나 면접에서 떨어지자 낙심을 하고 다시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공무원시험에서도 낙방의 쓴 맛을 또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장보살님께서 더 좋은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마음을 다독이면서 딸을 위해서도 꾸준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년 그대로 국민보험공단에 원서를 내고 필기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고 이제 면접을 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시험 때문에 준비를 못해서 기대를 안했고, 제가 걱정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보험공단에 원서 내는 것을 저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며칠 후에 면접을 보고 드디어 합격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애써도 되지 않던 합격이 이번에는 너무 순조롭게 해결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기 직전에 딸이 꿈을 꾸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하늘에 큰 화분이 매달려 있고 그 화분에서 네 일클로버를 두 개 따는 꿈이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주신 행운이었습니다. 지금 딸은 연수를 끝마치고 자기에게 딱 맞는 직장이라고 매우 좋아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고 앞으로 도 불자로서 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 대구시 서구 평리로 54길 이상혜

**지장보살님 기도 및 공부하는 방법**  
매일 <지장보살본경>을 1독 하고(분량이 많으면 몇 품씩 나누어 읽는다)  
춤다라니를 7회 정도 독송하고 참회발원하고 '지장보살' 칭명염불을 합니다.  
대구분원 지장제일 안내 : 매일 음력 18일 오전 10시  
대구분원 제일행사 안내 : 음력 1일, 15일, 23(마복제일), 2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9길 20(영남대학병원정문앞) 053) 654-5557

**불자 여러분들에게 정법과 사이비·외도·사마외도의 구별기준을 제시합니다**  
“삿된 외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대지의 흙과 같이 많고, 정법을 만나 수행하는 사람은 손톱 위의 흙과 같이 적다!”  
「잡아함경」

정법교단은 ①정경계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②부처님의 실존을 믿으며 ③지옥·극락 등의 사후세계가 확실히 있음을 가르치고 ④영혼체가 윤회주체를 설하며 ⑤금강경 등 경전을 중시하고 칭명염불을 정통수행법으로 채택하며 ⑥부모·조상님에 대한 효행, 스승 공경과 나라 사랑, 이타의 보살행을 핵심 수행덕목으로 삼고 실천하는 교단입니다.